opusdei.org

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의 유산

오프스 데이 단장인 에체바리 아 주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의 선종 1주기를 맞이하며 "교황님은 하느님과 인류를 위해 마지막까지 전력을 기울 이셨다" 라고 말 하였다.

2006-4-4

요한 바오로 2세 교황전하께서는 "인 간은 본인을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바치면서 인간으로서의 완전함에 도 달합니다" 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 다.

선종 1주기를 추모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: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전하께서는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사 랑과 희생을 실천하셨고, 예수님을 찾아 진정으로 사랑하셨으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파하셨다.

1978년 힘이 넘치고 건강한 교황님이 직위를 시작할 때와 최후 몇 년 동안 보여진 지치고 쇠약해지신 건강차이점은 단순한 시간이 흘렸다는 증표가 아니었습니다. 그것은 교황님의 완전한 희생이었습니다. 교황님은 하느님과 인류를 위해 전력을 쏟으셨습니다.

성스러운 교황님의 일생을 생각하면 삼위일체가 어떤 뜻으로 우리를 세상 에 두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. 우리 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극복해 야만 합니다. 인간의 자연적인 성소 는 사랑이지 이기심이 아닙니다. 또 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은 한도가 없습니다. 모든 사람들에게 편애 없 이 실천을 해야 합니다. 사랑은 우리 일생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.

세계역사와 교회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나 하고 여러 각도에서 교황님의 거대한 업적을 볼 수 있지만 오늘은 교황님의 인품에 대해 말하고싶습니다.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랑이었습니다. 하느님의 부르심에 답하기 위해서 아낌없이, 끝없이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gyohwang-yohan-baoro-2seyi-yusan/ (2025-12-12)